

# 삼성전자, 반도체 나노시티 조성

작업장 환경 및 업무방식 대폭 개선 ... 기흥·화성·온양거점 대상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을 <나노시티>로 명명하고 작업장 환경과 업무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삼성 나노시티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삼성전자는 4월6일 경기도 용인의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사업부장인 권오현 사장과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나노시티 선포식을 했다고 4월7일 발표했다.

꿈의 일터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노시티 프로젝트는 2009년 10월 가전, 정보통신부문 등이 있는 수원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디지털 시티 프로젝트에 이은 것으로 2011년까지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을 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는 첨단기업의 이미지에 맞춰 나노시티로 명명하고, 경기 기흥과 화성, 충남 온양 등 3곳의 반도체 사업장을 감성과 활력이 넘치는 대학캠퍼스와 같은 의미로 각각 캠퍼스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나노시티의 생산라인 외관에 감성적 색채와 그래픽을 적용해 공업단지의 이미지를 대학 캠퍼스와 같은 환경으로 바꾸고, 생산시설 내 건물과 도로명칭도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각 생산시설에는 노천카페와 피크닉 공간, 이동 갤러리, 웰빙 산책로 같은 여가 및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젊은 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도넛이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전문점도 유치할 방침이다.

또 기흥사업장에 지상 13층 규모의 연구동을 지어 4800여명의 임직원을 입주시키고 교육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기숙사는 편의점 같은 생활시설을 확대하고, 낡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재충전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낡은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업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워크 스마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권오현 사장은 선포식에서 “세계 1등 반도체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 넘치는 인프라, 활력이 충만한 스마트하고 소프트한 조직문화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열린 인사제도를 구현해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창조적 일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7>